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정책현장탐방

- 여성정치운동의 현장 :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여성정치운동의 현장 :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정치하는엄마들 역사는 2017년 초에 시작된 한겨레 주말판 칼럼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정치라는 주제로 장하나 전 국회의원, 19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 칼럼 기고를 시작했죠. 기고의 목적은 하나였다고 해요. “엄마정치”를 시작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편집주간을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장하나 활동가가 쓴 ‘저와 뜻이 통하신다면 우리 만납시다’ 라는 대목에 마음이 울려 적혀 있는 첫모임 장소로 찾아 간 거고요. 그래서 4월 22일에 저희가 처음 만났고 그 모임에 3-40명 정도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내가 이 곳에 왔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서사들이 생애사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비영리단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6월 11일에 비영리단체 창립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당시 공동대표를 맡게 된 3인(이은, 장하나, 조성실) 모두 4월 첫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예요. 모두 절박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엄청난 동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었죠. 엄마 정체성에서 비롯된 동질감과 연대감이 강력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24시간 풀가동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단체 창립을 준비하고 주 1회씩 오프라인 준비 위원회를 가졌어요. 자주 유선 상 연락도 나누면서 역할 분담을 했고요. 엄마가 사회인으로서의 자아도 잃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와 노동환경이란 게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해보고 싶어서 단체 문화에도 적용해보려고 시도하는 노력을 하면서 단체가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올 5월에는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는 책을 냈어요, 공동필진 10명 정도가 참가해서 출간을 했고, sbs 스페셜에서 ‘앵그리 맘의 반격’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또 최근 유치원 사태로 인해 여러 매체에 출연을 하면서 회원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의 아동과 양육자들이 겪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순을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해소하고자 모인 단체예요. 그 중에서도 ‘독박육아’와 ‘경력단절’과 같은 이슈를 당사자정치로 직접 풀어가겠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항구적으로 지속된다는 특성이 있고, 저희가 카페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중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는 글도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된 나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발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올 하반기 크게 이슈가 된 비리 유치원 사태 역시 단체의 문제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연결된 활동이었죠. 그리고 제도권 정치인을 길러내는 역할도 하고 싶은데요. 즉 한 두 명의 영웅적 정치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독박육아’나 ‘경력단절’ 등 엄마로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뉴스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정치인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 내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처럼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모순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스토리펀딩, 워크숍 개최, 성명서 발표 등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독박육아’나 ‘경력단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해답은 ‘노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들이 초창기에 경력단절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노동유연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면 재진입하기 어렵고 재진입하더라도 그 대안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도 기존의 경력이나 적성을 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천편일률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그나마 잘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고용안정성이 담보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력 기업들 중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고, 운영하기 위한 수고로움을 감당하기 보다는 과징금

을 물고 말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해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실제로 발표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그 목표에 부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패러다임 전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불발된 출산장려금 지급 등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빈자리에 적합한 노동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데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왕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분들에게 현금성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다만 출산 장려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무엇보다 현금성 지급을 통해 출산이 장려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여름 태풍이 와서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학부모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긴급재난 사태로 인해 급히 교육부가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면 동시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함께 지침을 내려 양육자에게는 휴가를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보육과 노동과 관련된 위원회나 부처의 업무가 정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이나 교육문제는 양육자의 노동처우와 맞물려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마’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엄마가 되고 나서 나라는 존재로 오롯이 불리지 못한다는 경험을 하었다고 토로합니다. 아이들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면서 ‘엄마’일 수는 없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어디서든 ‘엄마’로서의 역할이 앞서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단체의 이름에 ‘엄마’를 전면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엄마’가 가지는 기존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엄마로서의 역할은 공론화시키지 않고 사회인으로서 여성인 우리가 남성과 똑같이 경쟁할 수 있다고 보는 전제로부터 오히려 불평등이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전면에 ‘엄마’를 배치시킴으로써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뚫고 나가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 모성을 만들어보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지역사회, 조부모, 이모, 삼촌, 입양부모 등도 ‘엄마 역할’(mothering)을 할 수 있고 하고 있으며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아닌 ‘그냥’ 엄마들에게 해주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엄마‘들’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엄마로서 내 안에 쌓인 생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엄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독박육아, 자녀교육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좌절하는 엄마들이 모여 같이 연대하고 서로를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만납시다. 뜻이 통한다면 우리, 만납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